

힘내라 대한민국!

글 전수영 기자

경향신문

마스크 5부제 하면... 이 기다림 사라질까?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5일 시민들이 서울 지하철도 5호선 서대문역과 연결된 농협하나로마트 서대문점 앞에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강운중 기자 yjg@kyunghyang.com

중앙일보



코로나 비상, 마트에 줄선 미국인들 미국이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선언한 뒤 첫 주말을 맞은 14일 로스앤젤레스의 한 코스트코 앞에 생필품 비축에 나선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 곳곳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3월 11일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고, 16일에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누적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중국 본토 확진자를 넘어섰다.

감염 공포가 확산하면서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는 마스크와 손 세정제 부족 사태는 물론, 생활필수품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탄약 판매량이 급증했고, 일본에서는 화장지를 사재기하는 기이한 풍경도 연출됐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선 모습이 나타난 지 이미 오래다. 마스크 5부제 등 수급 안정화 노력에도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마스크가 생필품이 되어버린 요즘, 언론계에도 마스크를 매일 갈아 끼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자들이다. 아래는 지난 2월 21일 한국사진기자협회가 회원들에게 발송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다.



13월 1일 일본 도쿄의 슈퍼마켓에서 한 할머니가 텅 빈 화장지 진열대 옆을 지나가고 있다. 2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폐쇄된 경북 청도군 대남병원이 출입통제되고 있다. 김현태 기자

한국사진기자협회 공지드립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를 하는 협회 회원들의 건강이 우려될 뿐 아니라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취재진이 코로나19의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략) 병원과 검진소 취재 시 필히 마스크와 고글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후 최대한 원거리에서 취재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협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특히 대남병원은 포토라인을 치고 그 밖에서만 취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한 시점에서 사진기자협회 회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이다. 최일선에서 발로 뛰는 사진기자들의安危를 걱정하면서 감염 및 전파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1964년 출범한 사진기자협회는 전국 일간지와 통신사, 인터넷 매체 등 70여 개 언론사 사진기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다. 현장에서 거의 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인만큼 선·후배 간 유대감도 끈끈하다.

협회의 우려처럼 현장 접근이 필수적인 사진기자들은 확진자 등 바이러스 매개체에 부지불식간에 접촉할 수도 있고 이를 회사와 가정 등 지역사회에 전파하는 중간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바이러스 오염 현장에서 사태의 추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기록자의 역할도 해야 한다. 그러나 사진기자들은 이미 취재 현장에서 포토라인처럼 일정한 간격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행동규범을 실천해 왔다. 또 각종 재난 현장에서 누적된 동료 선후배 사이의 협력과 오랜 경험을 통해 현장의 감염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왔다.

위험사회에 진입한 상황 속에서 대다수 국민은 특종 만능주의와 정상 궤도를 벗어난 과도한 취재 경쟁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언론사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현 사태를 극복하는데 일조하는 현장의 기록자가 되길 바란다. 아파도 학교와 직장을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던 '라떼(나 때)는 말이야~'의 시대는 지나갔다. 현장의 기자들도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눈치 볼 필요 없이 바로 자가 격리하는 이타적 행동이 요구되는 때다.

힘내라 사진기자! 힘내라 대한민국!